

8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약세

8월 국내 광고경기는 여름 비수기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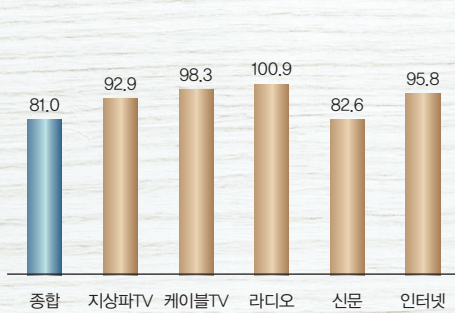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예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8월 예측지수가 81.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92.9), 종편PP를 포함한 케이블TV(98.3), 라디오(100.9), 신문(82.6), 인터넷(95.8) 등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기초산업재(125.1), 가정용품(111.0), 출판 및 교육(103.2) 등의 업종에서 광고비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수송기기(37.2), 제약 및 의료(52.0), 증권 및 자산운용(55.1) 등의 업종에서는 광고비 감소가 예상된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KAA**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